

# 2격수를 아시나요... 맷 감독의 시프트



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흥백전 5회말 1사 3루에서 3루 주자 최원준이 황윤호의 쓰리 번트 때 홈에 들어오다가 아웃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 KIA 흥백전 6차전

3루수, 2루·유격수 사이로 이동  
수비 시프트 영역 확대  
볼 카운트 불리해도 번트 강행  
감독, 상황마다 다양한 변화 시도

가능·홍상삼 마운드 대결  
양현종, 중간 계투로 컨디션 점검

‘윌리엄스호’의 본색이 드러난다. KIA 타이거즈가 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흥백전 6차전을 치렀다. 문선재의 솔로포 등을 앞세운 흥팀의 4-1 승리로 끝난 이날 경기에서 드류 가능과 홍상삼이 선발로 마운드 대결을 벌였고, 양현종과 함께 부상에서 쉬었던 전상현까지 등판하면서 마운드에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이날 진짜 ‘관전 포인트’는 따로 있었다. 바로 윌리엄스 감독의 ‘손짓’이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앞선 흥백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경기에 개입했다. 극단적인 시프트와 쓰리 번트까지 감행했고, 작전 상황에 맞게 라인업을 변칙으로 바꿔 선수들을 기용

하는 등 세밀하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2격수’라는 변칙 시프트였다. 0-1로 뒤진 5회초 무사 1루에서 나온 아웃카운트는 ‘2-5B’로 표현할 수 있다. 포수(2)가 공을 잡아 3루수(5)에게 송구했고, 3루수가 2루 베이스(B)를 밟아 아웃카운트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포수 아웃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2루베이스까지 표기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이 복잡한 만큼 B를 적어표기할 수 있다. 유격수도 아닌 3루수가 2루 베이스에서 아웃 카운트를 잡은 희귀한 상황은 어떻게 연출됐을까? 선두타자 김민식이 볼넷을 끌라 출루했다. 타석에 좌타자 김연준이 서자 윌리엄스 감독은 시프트를 걸었다. 3루에 있던 장영석이 2루 베이스를 지나 2루수 김선빈과 유격수 박찬호 사이에 섰다. 3루는 비워둔 채 유격수를 마지노선으로 4명의 내야진이 오른쪽에 포진한 파격적인 시프트였다. 내야진이 포지션 그대로 옆으로 나란히 이동한 시프트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이에 고정 포지션을 깨고 시프트를 거는 건 흔치 않다. 수비진이 자리에 잡은 뒤 타석에 선 좌타자 김연준이 보내기 번트를 시도했다. 하지만 공은 포수 앞에 떨어졌고, 한승택은 선행주자를 잡기 위해 2루로 송구했다. ‘2격수’로 있던 장영석이 포구를 하면서 낯선 아웃카운트가 완성됐다. 장영석은 이날 두 차례 2루 원정을 나왔다. 또 다른 인상적인 장면은 부상에서 벗어난 전상현

이 흥백전에 첫 등판한 5회말에 나왔다. 연속 안타 뒤 삼진으로 1사 1·3루. 윌리엄스 감독이 원래 타순인 한승택 대신 황윤호를 투입해 번트 작전을 냈다. 황윤호가 연속 파울로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렸다. 그리고 정상 타격 자세를 취했던 황윤호가 이내 번트 자세로 바꾸면서 쓰리 번트가 이뤄졌다. 3루 주자 최원준이 그사이 홈을 파고들었지만 빠르게 반응한 전상현이 클러브로 공을 낚아쳐 그대로 공을 포수에게 토스하면서 아웃을 만들었다. 좋은 수비를 선보인 전상현은 경기가 끝난 뒤 “쓰리 번트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고 웃었다. 앞선 흥백전에서 윌리엄스 감독은 3루 주자 나지완과 좌타자 최정용을 두고 스트라이크 상황에 움직이는 세이프티 스퀴즈 번트 작전을 내기도 했었다. 작전은 종종 나왔지만, 5일 경기처럼 상황마다 실전처럼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은 처음이다. 마운드에서도 이닝을 나눠서 던지게 하던 것과 달리 좌완 이준영을 7회 좌타자 터커 승부 상황에서만 원포인트로 기용하는 등 투타에서 윌리엄스 감독의 본격적인 시범이 시작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작전 차원에서 다양한 선수 변화를 시도했다. 시프트도 수비 훈련의 하나다. 실전에서 선수들에게 위치 선정 경험을 주기 위해 타자에 맞춰 시프트를 걸었다”며 “유격수를 제자리에 두고 3루수를 2루 베이스 우측에 둔 건 좌측 타구가 나왔을 때 유격수의 넓은 수비 범위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핫 플레이어 - 투수 전상현

### 첫 실전 2피안타 무실점... 팔꿈치 부상 훌훌

KIA 타이거즈 전상현의 2020시즌이 다시 시작됐다. 전상현은 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흥백전을 통해 지난 2월 29일 이후 한 달 여 만에 마운드에 섰다. 전상현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스프링캠프에서 세 차례 등판했다. 2월 23일 첫 등판을 시작으로 26일 그리고 29일에도 경기에 나왔다. 하지만 이후 팔꿈치 염증이 생기면서 전상현의 시즌 준비가 중단됐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완벽한 재활을 목표로 차근 차근 다시 시즌 준비를 시작했고, 5일 첫 실전을 소화했다. 결과는 2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 첫 상대 최원준에 이어 김주찬에게 연달아 안타를 맞은 전상현은 장영석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첫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그리고 1사 1·3루에서 감행된 쓰리번트 상황에서 타자 황윤호의 공을 직접 잡아 포수 한승택에게 넘기면서 투 아웃을 만들었다. 마지막 타구도 직접 처리했다.

전상현은 “안 아프고 던졌다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밸런스나 감각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았다”며 “최근 피칭할 때 밸런스가 좋았다. 시합 때도 그런 느낌으로 던졌는데 처음치고는 괜찮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계속 시합 구경하면서 빨리 던지고 싶었다. 다행히 좋은 몸 상태에서 공을 던져서 좋다. 결과를 떠나서 던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 더 준비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전상현에게는 개막 연기가 전화위부이 됐다. 전상현은 “부상이 심하지는 않았는데 염증이 있었다. 개막이 연기돼서 다시 준비를 해서 몸 상태를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 시즌을 앞두고 포크볼 장작을 준비했지만 부상으로 일단 중단된 상황. 무엇보다 자신의 장점인 ‘직구’를 우선으로 준비하겠다는 생각이다. 전상현은 “손가락이 짧아 포크볼이 잘 안 맞기도 하고 부상까지 겹쳐 중단했다. 캐치볼하면서 점차 해볼 생각이다”면서도 “더 연마하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염두에 두고 시즌 완주를 노릴 생각이다. 전상현은 “부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부담감은 딱히 없다. 개인적인 목표는 없고 개막 엔트리 드는 것, 끝까지 가서는 풀타임을 치르는 게 목표다. 가을 야구를 꼭 하고 싶다”며 “오늘 처음이었으니까 다음 등판에서는 변화구 연습, 전체적인 시즌 연습을 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페널티킥’ 완벽남 노상래...철벽남 유상훈

K리그 38년 2109회 중 79% 성공  
노상래, 28번 도전 100% 성공  
수문장 유상훈, 15회 중 8회 막아



노상래

11m를 놓고 전개되는 숨막히는 신경전. 가장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만큼 실패의 충격은 크다. 페널티킥은 축구에서 경기 방향을 한 번에 바꾸는 기회이자 부담 많은 승부다. K리그에서 기록된 페널티킥의 모든 것들을 알아본다. K리그는 1983년 출범 이후 총 1만 6148 경기를 치렀다. 페널티킥은 총 2109번 나오면서 경기당 평균 약 0.128개의 페널티킥이 기록됐다. 이중 골로 연결된 페널티킥은 1671회, 실패로 끝난 경우는 483회로 성공률은 79.2%를 보인다. 가장 높은 페널티킥 성공률을 자랑한 팀은 전남이다. 전남은 123번의 기회 중 106회 상대 골대를 가르면서 86.2%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완성이 115회 중 99회(86.1%), 제주가 147개 중 124회(84.4%)를 성공하면서 그 뒤를 잇고 있다. 페널티킥을 많이 내준 구단은 제주(171회), 울산(166회), 부산(149회), 포항(146회) 등이었다. ‘백발백중’의 페널티킥 실력을 자랑한 이는 노상래다. 전남과 대구에서 활약했던 노상래는 통산 28번 페널티킥 키키로 나서,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 20번 이상 페널티킥에 도전해 ‘성공률 100%’를 기록한 이는 노상래가 유일하다. 김은중(27회 중 24회·88.9%), 데얀(24회 중 21회·87.5%), 우성용(30회 중 26회·86.7%) 등도 높은 성공률을 자랑한다. 부산 호물로도 페널티킥하면 빼놓을 수 없다. 12번의 페널티킥 중 11번을 성공한 호물로는 K리그 사상 최초로 ‘페널티킥 헤트트릭’을 이룬 선수다. 호물로는 지난해 3월 30일 K리그2 부천전에서 페널티킥만으로 세 골을 만들어나갔다. 역대 승강플레이오프에서 나온 두 번의 페널티킥(2017·2019년)의 주인공도 역시 호

물로도. 2019년 승강플레이오프에서 만든 골은 부산의 승격을 이끈 페널티킥 결승골이기도 했다. 페널티킥 상황에서 ‘철벽 방어’를 과시한 선수는 서울의 수문장 유상훈으로, 총 15번의 페널티킥 중 8번을 막아내며 무려 53.5%의 선방률을 보였다. 그의 페널티킥 선방능력은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발휘됐다. 유상훈은 포항과 승부차기까지 갔던 2014 시즌 AFC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 3연속 선방으로 서울의 3-0 승부차기 승리를 이끌었다. 페널티킥 선방 횟수가 가장 많았던 골키퍼는 24시즌 동안 그라운드를 누빈 김병지로 총 94회의 페널티킥 중 22회를 막았다. K리그가 경기기록을 세분화한 2013시즌부터 지난해 승강플레이오프까지 페널티킥은 총 854회가 나왔다. 전반에 322회, 후반에 532회 페널티킥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다. 페널티킥 사유로는 ‘핸드볼’ 반칙이 전체 중 19.8%에 해당하는 169회로 가장 많았다. 페널티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를 걸어 넘어뜨린 ‘트리핑’이 164회, 상대 선수를 미는 ‘푸싱’이 147회, ‘태클’이 100회, ‘킥킹’이 46회 있었다. 2013년 이후 성공한 페널티킥은 657개. 왼쪽으로 들어간 경우는 330번, 오른쪽이 236번, 가운데가 91번이었다. 전남과 강원에서 뛰었던 웨슬리는 6개의 페널티킥 중 3개를 가운데로 넣으며 정면 승부를 펼쳤다. 실패한 3개 중 2개 역시 가운데 코스로 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MLB ‘한국계 노아 송’ 주목

193cm 키·최고 구속 159km...MLB 닷컴, 보스턴 기대주 선정

지난해 11월 야구 국가대항전인 ‘프리미어12’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긴 한국계 투수 유망주 노아 송(23·미국)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차기 에이스로 손꼽혔다. 메이저리그(MLB) 공식 사이트인 MLB 닷컴은 지난 4일 리그 30개 구단별 차기 에이스를 선정했다. 보스턴에서는 노아 송이 마운드의 대들보로 인정받았다. 한국인 아버지(빙 송 씨)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노아 송은 지난해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전체 137순위로 보스턴의 지명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프리미어12’에서 미국 국가 대표로 나선 그는 5경기에서 5.1이닝을 던지며 6개 홈런을 기록하며 단 1점도 내주지 않았다. 최고 시속 159km의 강속구로, 프리미어12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진 투수로도 기록됐다. 다만 노아 송이 메이저리그에서 던지는 모습을 보려면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한다. MLB닷컴은 “해군 의무 복무만 아니었다면 이 우안 파워 피쳐는 1라운드에 지명됐을 것”이라며 “대신 보스턴은 4라운드에서 지명했다.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는 선수다. 193cm의 큰 키에 99마일(약 159km) 강속구를 던진다. 강력한 체인지업도 있고, 커브역시 평균 이상의 구종이 될 잠재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노아 송은 최소 2년을 해군 장교로 복무해야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밟을 수 있다. /연합뉴스



노아 송은 지난해 12월 입대를 신청했지만, 미국 해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LB닷컴은 “노아 송이 향후 2년간 레드삭스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그가 보스턴의 어떤 유망주와 비교해도 최고의 구위를 가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아 송은 존 레스터 이후로 끊긴 자체 생산 에이스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속한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는 올해 스프링캠프에서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던진 네이트 피어슨이 미래의 에이스로 꼽혔다. /연합뉴스